섬의 날 '썸 페스티벌' 15만명 몰려

지난해 국가기념일 제정 후 올해 첫 행사

"섬 연구기관 설립해 블루이코노미 실현"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15만 방문객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의 날 행사는 지난해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후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사람, 만남, 평화, 연결, 꿈, 자연, 행복, 미래 등 섬이 지닌 8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섬의 날 기념행사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섬의 모든 것을 알리고 알기 위한 참여와 관심도 뜨거웠다.

국가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서삼석·윤소하·윤영일 국회의원, 전국 섬지역 시장·군수, 지방의원, 전국 53개 지자체, 기관, 단체와 103개 섬 주민이 대거 참여했다.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국립 섬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남도는 섬 발전 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글로벌 섬재단 곽유석 부이사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전남지역 기관 단체에서 정부 포상을 대거 수상했다.

특히 전국의 섬 주민 400여 명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섬에서의 삶의 애환과 성공스토리 등을 이야기하고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섬 주민대회와 학술대회도 열렸다.

섬의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섬 주민들이 참여하는 섬 민속 경연대회와 섬 특산품 홍보를 위한 경매 이벤트에선 행사 기간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후 목포시 삼학도 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에서 등대 조형물 등장에 박수를 치고 있다.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동요대회, 해양직업 체험관, 스타셰프 푸드쇼, 요트 체험,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케이팝(K-pop)콘서트 등 부대행사는 어린이, 청소년이 대거 참여해 섬의 날 홍보에 톡톡히 기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처음으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 섬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으로 육성,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유라시아 대장정에 나섰던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이 17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전남도 교육청에서 귀국보고회까지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17일 대장정 완료 귀국보고회

백두산 등정·안중근 의사 유적 등 순례

유라시아 대장정에 나섰던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이 17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가 16박17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짓고 도교육청에서 귀국보고회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귀국보고회에는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 도교육청 간부진과 직원, 신민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친 열차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학생 80명과 지도교원, 운영요원 22명 등 모두 102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과 중국 하얼빈, 백두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거친 유라시아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학생대표인 장흥고 김슬기양은 "백두산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흐르는 천지를 바라보면서 옛 고구려와 발해땅에서 통일을 외치며 천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통일코리아의 주역으로서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에서 분단의 현실을 지켜보며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봤을 것"이라며 "이번 여정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차학교 학생들은 8명씩 10개 반으로 나눠 반별 지도교사와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하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등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고, 고려인마을 봉사활동, 자치회 활동, 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민족정기가 서린 백두산 천지에 올라 통일희망의 꿈을 새겼다. 백두산 등정에 앞서서는 광개토태왕릉비와 장군총, 압록강 일대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통해 대륙으로 향한 고구려의 기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잃어버린 땅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슴으로 느꼈다.

학생들은 또한 중국 하얼빈과 뤼순 관동법원, 뤼순감옥을 찾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김정환 기자

귀어 스몰엑스포 '성료'

100여명 전남 귀어 의사

전남도는 제2회 귀어 스몰엑스포에서 100여 명이 전남으로의 귀어 의사를 내비쳤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지난 10일 열린 귀어 스몰엑스포는 전남도, 해양수산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개최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250여 명의 귀어 희망 도시민이 참여 귀어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또 전남 우수 어촌계 49곳의 어업인, 선도귀어인 등 20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과 전남을 대표하는 어촌계가 상담을 통해 100여 명의 도시민이 전남으로의 귀어 의사 내비쳤다.

이들 중 80여 명은 오는 9월부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함께 운영하는 단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 '전남 어촌 탐구생활'과 장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 '도시민 어민 되다'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귀어 희망 도시민들은 등 목포, 여수, 순천, 영광, 무안, 장흥, 강진, 진도, 해남, 완도, 보성, 함평, 고흥, 50개 어촌계에서 꾸민 부스, 성공귀어인 부스 등에서 어촌계장, 이장, 청년회장, 성공귀어인 등과 1대1 상담을 가졌다.

김정환 기자

동구, 광주문화재야행 달빛걸음 성료

광주 동구가 지난 9~10일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석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한 2019 광주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달빛걸음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대회 기간에 개최돼 많은 내·외국인 방문객이 몰리며 이틀 간 7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동구의 역사문화유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코레일광주본부와 함께 기차여행 연계상품을 선보이고 홍보단 '내일로 기행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달빛걸음' 브랜드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공모사업 운영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 '2019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을 운영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사업비 480만원(국비 100%)으로 행복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9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는 2회에 걸쳐 윤미경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그림책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못말리는 카멜레온 등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9일에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김장성 저) 도서를 읽고, 수박농사 과정을 보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남구, 15일 日 역사왜곡·경제보복 항일 음악회

광주 남구는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제7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5일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친일·항일 음악회'를 개최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주월동 푸른길 공원 청로정 앞 공연장에서 '광복 제74주년 친일·항일 음악회'가 열린다.

남구가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주관하는 이 음악회는 광복 72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에 첫 선을 뵌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의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만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 여름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광주시 북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상태 및 안전취약 요소를 집중점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최근 폭염 속 화상, 온열질환 등 놀이시설 이용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아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총 56명의 안전보안관을 15개반으로 편성해 관내 놀이시설 46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이 중 설치가 오래된 필수점검 대상 놀이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 놀이시설 내 ·구조물 변형 ·고리·볼트·나사 풀림 ·장애물 적재 및 바닥재 파임 등 안전 상태와 놀이시설 주변의 ·인도·도로·맨홀 파손 ·가로·보안등 작동 여부 ·4대 불법주정차 등의 안전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광산구, 일 수출규제 맞설 경제전략 듣는다

12일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구청에서 한국산업기술대 안현호 총장을 초청, '일본을 이기는 경제전략, 한중일 新(신) 경제삼국지'를 주제로 '광산경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설 다양한 산업정책과 중소상공업 진로를 제시하고, 한중일 경제현황을 진단하는 자리.

강연에 나서는 안 총장은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자부 산업경제실장,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경제와 실물경제 전문가다. .

강연에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광산경제아카데미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 56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차 영 희 (390518-2573811)
최 후 주 소 : 여수시 대학로 46, 105동 102호(미평동, 선경아파트)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복1길 6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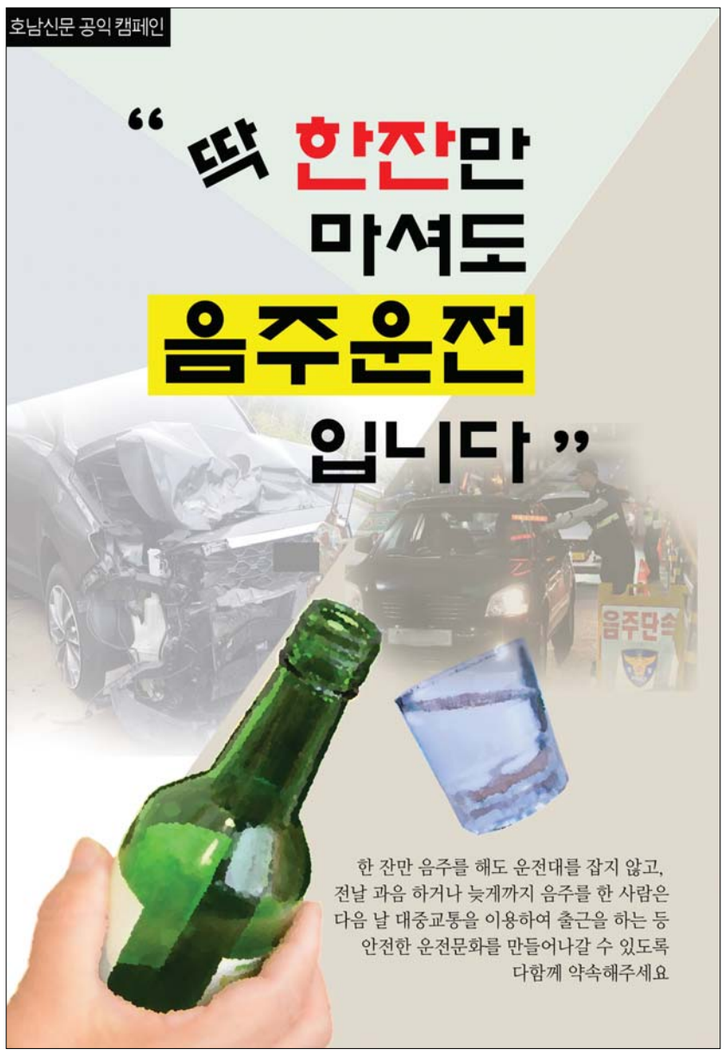
위 망 차영희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12일

공 고 인 : 여정태.
주 소 :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88-22, 104동 905호 (월계동, 첨단신동아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1일
공고기간 : 2019. 8. 12~ 2019. 10. 12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